

구원투수 등판 서정진, 해외시장 승부... 3사 합병도 추진

〈명예회장〉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그룹 정기주주총회

금감원 행정절차 7월 마무리될 듯 불확실성 위기 속 일시적 복귀 적극적인 M&A 추진 할 계획

“회사를 잘 운영해서 주주들이 손해 보지 않게 해야하는데, 금융시장이 워낙 어렵다보니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전 경영진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일 오전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2기 정기주주총회'에 모습을 드러낸 셀트리온그룹의 창업주 서정진 명예회장의 첫 마디다. 이날 현장은 주총 시작 전부터 저조한 주가에 항의하는 주주들의 거센 항의로 소란스러웠다.

서 회장은 주총 시작 전 자리에 참석해 주주들에게 인사말과 함께 실적 부진 및 주가 하락에 관련해 사과했다. “아직 주총 전이라 안전이 결의되지 않아 지금은 명예회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주총은 주주들끼리 다루는 자리가 아니다. 주총 전에 사과 인사를 드리러 나왔으니 주총이 원활하게 진행



셀트리온 주주총회_현장.

/셀트리온

될 수 있도록 주주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올초 글로벌 시장 점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서 명예회장은 “올해 글로벌 27개국을 점검하고 국가별 위탁생산 현황과 생산능력을 살펴봤다”며 “3월에 미국과 캐나다를 정비하고 왔는데, 경영에 복귀하면 경영진들에게 더욱 강력한 현장 지침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 회장은 2021년 3월 경영 일선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그룹을 둘러싼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소방수’ 역할로 다시 현직에 돌아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 회장은 기자들의 복귀 배경에 대한 질문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며 “모든 그룹 총수가 그렇듯 회사에 위기가 닥치면 가장 경력이 많은 총수는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입을 뗐다. 이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현장으로 돌아온 것이고, 안정되면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셀트리온은 ▲제3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사 선임의 건은 서정진 명예회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 기우성 대표이사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이혁재 경영지원부문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다.

모든 안건들은 현장 출석주주 과반수, 의결권 발행주식 총수 1/4 이상을 충족해 통과됐다. 서 명예회장은 사내이사 선임 안전에 대한 표결 결과 79.67%의 찬성을 받아 2년 임기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셀트리온을 제외한 셀트리온그룹 2개사 주총이 예정대로 끝나면 서 명예회장은 2년 임기로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을 맡게 된다.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 부회장도 3년 임기로 재선임됐다.

2년만에 경영일선상에 복귀한 서 명예회장은 휴미라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유플라이마’와 자가면역질환 피하주사 ‘렘시마SC’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중 첫 고농도 제품으로 유럽시장에 진출한 ‘유플라이마’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오는 7월 미국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

차세대 전략제품인 ‘렘시마SC’는 지난해 미국 FDA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이 제품은 유럽에선 작년 3분기 기준 14.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M&A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여러 바이오학과 함께 차세대 의약품 개발과 기존 파이프라인의 제형 다양화를 위한 기술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의약품 트렌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M&A를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글로벌 임상, 허가 등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케미컬의약품 사업 영역도 확대할 방침이다.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합병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서 회장은 “금융감독원에 오는 7월 마지막 리포트를 제출하면 행정적 절차가 끝난다”며 “주주들이 합병을 원하기 때문에 합병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동아제약, ‘판피린큐·챔프’ 역대 최고 매출

판피린큐 418억·챔프 100억 돌파 12년 연속 약국 판매 1위 지켜내



동아제약 종합감기약 ‘판피린큐’.

동아제약이 감기약과 해열제 시장에서 활황 날아올랐다. 종합감기약에서는 판피린큐가, 어린이 해열제로는 챔프가 모두 약국 1위를 석권한 것이다.

28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를 토대로 주요 감기약과 해열제 시장을 분석한 결과, 판피린큐가 418억원 매출을 올렸고, 어린이 해열제로는 챔프가 100억원 매출 돌파했다. 두 제품 모두 역대 최고 매출이다.

판피린큐 매출은 전년 287억원 대비 45.7% 가량 증가한 수치다. 액상형 감기약의 원조인 판피린큐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약으로, 액상 감기약 중 처음으로 400억원 고지를 돌파하는 기염

감기약 분야에서 약국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다. 무려 12년 연속 약국 판매 1등인 셈이다.

어린이 해열제 시장도 동아제약이 석권했다. 챔프는 아이큐비아 데이터 기준 116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당당히 1위에 자리했다. 전년(2021년) 대비 103% 가량 성장했다. 지난해 주요 어린이 해열제 매출액이 약 210억원인데 챔프가 절반 이상을 해낸 셈이다.

챔프는 1993년 최초 발매 이후 2012년 파우치 포장 시범으로 리뉴얼됐다. 이후 10년 이상 사랑받고 있는 어린이 전문 해열감기 브랜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이큐비아 기준으로는 해열제 부문 5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 중이다. 챔프는 색소와 보존제가 없는 게 특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JW신약, 탈모·무좀약 론칭 심포지엄

갈더마코리아 2개 제품 국내 독점 공급

치료한다.

JW신약은 27일 조선펠리스호텔에서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알파액’, 손발톱무좀 치료제 ‘로세릴네일라카’ 론칭 심포지엄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15일 JW신약이 갈더마코리아와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JW신약은 앞으로 갈더마코리아의 엘-크라넬알파액과 로세릴네일라카의 국내 영업·마케팅을 전담한다.

국내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대한모발학회 허창훈 교수(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가 연자로 나서 탈모치료제 엘-크라넬알파액에 대해 소개했다. 엘-크라넬알파액은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겐성 탈모치료제로 탈모의 원인인 디히드로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3중으로 억제해 탈모를 효과적으로

두번째 연자로 나선 김상석 교수(강동성심병원 피부과)는 “로세릴네일라카는 손발톱에 직접 도포하는 매니큐어형 외용제로 주 1~2회 사용해도 7~14일간 항진균효과가 유지된다”며 “보험급여가 가능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까지 경감시켜줄 수 있어 손발톱무좀 환자의 퍼스트(first) 홈케어 치료제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JW신약은 엘-크라넬알파액과 로세릴네일라카 론칭으로 피부질환 치료제 시장 경쟁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관 JW신약 대표이사는 “세계적인 피부질환 전문기업인 갈더마의 제품 도입으로 JW신약의 의약품 포트폴리오가 더욱 탄탄해졌다”며 “향후 3년간 약 500억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제품군으로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도미노피자

식목일기념 굿즈 ‘씨드스틱’ 제공

도미노피자가 식목일을 맞아 한정판 피자박스를 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식목일 한정판 피자박스는 지난 2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진행한 ‘어깨동무 그림그리기 대회’ 입상작으로 구성됐다.

오는 31일부터는 입상 아동들의 그림이 새겨진 씨드스틱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19세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모든 피자(M/L) 방문 포장 주문 시 선착순 1만명에게 씨드스틱 굿즈를 제공한다. 씨드스틱 화분에 꽃고 물만 부어주면 집에서 쉽게 식물을 가꿀 수 있다.

/신원선 기자

CJ푸드빌, ‘이탈리안 정통’ 봄 메뉴 출시

더플레이스, 와인 라인업도 확대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이탈리안 비스트로 더플레이스가 봄을 맞아 이탈리안 정통성을 강화한 봄 시즌 메뉴를 오는 30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즌 메뉴는 이탈리아어로 ‘봄의 축제’를 뜻하는 ‘페스타 디 프라마베라’라는 콘셉트 아래 루꼴라, 프로슈토, 그레몰라타 드레싱 등 이탈리아 요리에서 널리 사용되는 재료를 활용했으며, 화사한 색감으로 보기만 해도 산뜻한 봄이 느껴진다.

일상적으로 와인을 즐기는 이탈리안 다이닝 문화를 반영해 와인 라인업을 확대하고 와인과 궁합이 잘 맞는 메뉴

로 구성했다.

‘루꼴라 프로슈토 피자’는 신선한 루꼴라와 프로슈토를 올린 토마토 소스 피자 48시간 숙성한 수제도우를 고온 화덕에서 구워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다. ‘부라타 카프레제’는 부라타 치즈, 토마토, 루꼴라에 이탈리아 드레싱 ‘그레몰라타’를 곁들인 샐러드다.

와인과 가볍게 즐기 좋은 비스트로 메뉴도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할리스, 홈트레이닝 MD ‘할리스 핏’ 선보

요가매트, 폼롤러, 마사지볼 3종

어디서든 손쉽게 나만의 홈트를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기획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할리스가 홈트레이닝 MD인 ‘할리스 핏’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요가매트, 폼롤러, 마사지볼 3종으로 선보이며, 친환경 소재인 코르크로 제작해 몸과 환경을 동시에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가치까지 담았다.

이번에 출시한 ‘할리스 핏’은 할리스가 처음 출시하는 홈트레이닝 제품이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삶의 여유와 균형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지속되는 것에 주목해 소비자가 언제

할리스 핏은 나무를 베지 않고 나무 껍질만을 이용하는 코르크 소재로 제작해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다. 유해 물질 테스트까지 모두 완료해 피부에 닿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촘촘한 나무 입자 구조로 빠르게 건조되고 탈취 효과도 있어 청결한 관리가 가능하다.

요가매트, 폼롤러, 마사지볼과 전용 예코백으로 구성된 홈트세트와 요가매트 단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